진우 스님, 학인에 "5초 멈추고 내려놓으라"

7월 14~15일 한국문화연수원서 학인수행프로그램

진우 스님, 15일 특별법문
자신 마음 집중 "결국 사라진다"
괴로움 관철 연습이 '선명상'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동량이자 종단의 보배인 학인스님들을 만나 교학과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을 응원했다.

진우 스님은 7월 1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5년도 사찰승가대학 학인수행프로그램'에 동참한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참된 수행자의 길, 학인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학인수행프로그램은 7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렸다. 사찰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이 교학과 수행에 선명상을 접목해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수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은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해탈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또 학인스님들에게 직접 선명상 수행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인스님들에게 먼저 '왜 출가했는지'를 물은 진우 스님은 "괴로움의 속성을 살피자"고 말문을 열었다.

"기분이 좋고 나쁜 두가지 상반된 감정을 돌아 가는 것이 윤회"라면서 즐거움 총량과 괴로움 총량은 같음을 설명한 스님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인과 원칙이고 현대과학으로 보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며 "업의 원리를 알면 이 업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방법이 나온다. 업장소멸을 해야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결국 사라진다"면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중도의 마음을 가질 때 정토가 된다"면서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고 했다. 이어 '선명상'을 설명한 스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현대 시대 정서에 맞게 변화시켜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에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면서 "선과 명상은 궁극적으로 같고, 명상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처리하는 법을 선명상을 통해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한 법문에서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해탈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려는 욕심에서 빨리 벗어나고 괴로움을 관철하려고 연습하는 것이 선명상이라고 설명한 스님은 "5초 멈추고, 즉시 내려놓는 것이 선명상의 백미다. 순간적으로 내려놓는 방하착 명상을 하다보면 업장이 소멸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출가해 집착을 해결하고 마음을 평안을 찾는데 선명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법문에 앞서 학인스님들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곡사까지 걷기선명상을 진행했다. 이어 학인 선명상 팀별 과제 수행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7월 14일에는 한산사 용성선원장이자 선명상위원회 자문위원인 월암 스님이 '참된 수행자의 길'을 주제로 법문했다. 또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 소장 혜주 스님이 '학인 선명상과 세계 명상의 흐름과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다.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과 함께 선명상 실참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 위해 십시일반

천태종 덕수 스님 기금 전달
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2000만원

지난 6월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스님들과 전국 사찰, 불자단체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7월 17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체험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덕수 스님은 "한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도 7월 16일 2000만원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화재 피해 당사자들인데 기금을 모아줘 고맙다"면서 "스님들 성원으로 원만 복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안전하게 복구가 완료돼 입주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수행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현성정사(주지 본연 스님)와 세종 광제사(주지 현우 스님)는 7월 14일 100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불교중앙박물관 봉사자들의 모임인 불교중앙박물관회(회장 고재경)도 1000만원을 전달하며 원활한 화재 복구를 염원했다. 특히 기금은 봉사자들이 불교 문화유산 매입을 위해 오랜기간 십시일반한 모연금에서 희사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진우 스님은 "봉사자들의 정신이 깊이 살아난 공간이 되도록 박물관을 잘 복구하겠다"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전법하며 보시 중 가장 중요한 '법보시'를 하고 있다. 긍지를 갖고 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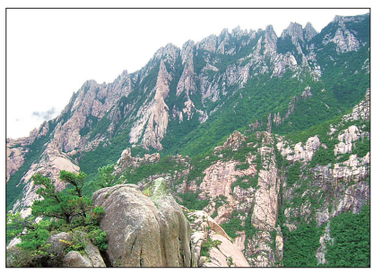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은 7월 16일 총무원 청사 화재 피해 복구를 염원하며 200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반구대 암각화·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축하"

진우 스님, 7월 13일 환영 논평
"남북 유산 함께 등재 의미 커
금강산은 민족영산, 불교 성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한의 반구대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7월 13일 발표한 환영 논평에서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민족이 담지하는 여러 전통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의 문화유산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금강산 세존봉 전경. 금강산은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사진 출처=위키백과

진우 스님은 금강산이 "민족의 영산(靈山)이자 한국불교의 성지(聖地)"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금강산 곳곳에 남아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중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신계사를 2007년 조계종과 북한불교계가 복원했음을 상기하며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서원했다.

반구대 암각화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불교미술 석학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여서다. 한반도 선사인들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 '반구천 암각화'는 불교미술사학자 문명대 명예교수가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조사하던 중 1970, 1971년 잇달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최종 선정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현지 시간)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중일 기자

마곡사 주지후보에 원경 스님

7월 17일 산중총회서 4연임
"지역 포교 · 승려복지에 최선을"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에 원경 스님이 선출됐다.

마곡사는 7월 17일 오후 경내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산중총회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해 구성원 167명(비구 124명, 비구니 43명) 중 본말사 스님 156명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원경 스님이 87표를 얻어 주지후보로 당선됐다. 이로써 원경 스님은 4연임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기호 2번 제민 스님은 65표, 기호 4번 혜룡 스님이 2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로 집계됐다.


원경 스님(가운데)이 7월 17일 마곡사 주지 후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역 포교와 승려복지를 강조하며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대중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경 스님은 종립학교관리위원, 성불사 주지, 제13·14·15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마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